



여수 송기홍



영암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 담양군, 추석 연휴 12만여명 다녀가



5일간의 추석 황금연휴에 담양군의 관광지엔 12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어우러진 선

선한 날씨 속에 메타프로방스 5만여명, 죽녹원은 3만4천여명, 메타세쿼이아랜드 1만4천여명, 소쇄원 6천여명 등 총 12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

## 메타프로방스 등 관광지 마다 '인산인해' '시티투어' 운영으로 새로운 볼거리 제공

해 힐링 명소로서의 입지를 싹감게 했다. 특히 메타세쿼이아랜드 옆에 위치한 담양의 작은 유럽 메타프로방스는 추석연휴 기간동안에 5만여명이 다녀갔으며, 특히 추석 다음날인 지난 25일에는 주변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관광객들로 넘쳐났다. 쾌청한 날씨 속에 산책로로 급부상하고 있는 담양호 용마루길도 산책을 즐기려는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또한 죽녹원, 메타세쿼이아랜드 등 관내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친환경 무공해 전기버스를 통한 '담양시

티투어' 운영으로 담양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도 인기몰이에 한몫했다. 군 관계자는 "담양다운 품격 있는 문화를 살린 관광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가을 관광철을 맞아 서정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담양의 죽녹원, 관방재림, 메타세쿼이아길, 용마루길 등을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여수시, 대한민국 SNS 대상 2년 연속 수상

여수이야기·힐링! 여수야 등 이용 소통노력 인정



여수시가 2018 대한민국 SNS 대상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 기관에 선정되며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도시가 됐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회가 공공기관과 기업 대상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8회를 맞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행사를 후원한다.

이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공식 SNS '여수이야기'와 관광전문 SNS '힐링! 여수야'를 통해 시민 뿐 아니라 관광객과도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

특히 '여수이야기'는 일반적인 정보전달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함께 만들어 가며 참여와 소통의 대표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카카오톡으로 생활불편사항을 접수한 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민원 SNS 여수신문고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도 동일부문 대상을 받았고, 2016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여수이야기'와 '힐링! 여수야' 등을 운영하는 여수시는 소셜미디어 영향력 지수(KoSBI)를 활용한 정량평가와 전문가평가, 국민 대상 이용자 투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

여수=송기홍 기자

## 담양군, 테마 여행 10선 '남도맛기행' 책자 발간

담양군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 사업의 일환으로 '명사와 떠나는 로드스쿨라'와 '토요일은 좋아 담양맛기행' 홍보책자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명사와 떠나는 로드스쿨라'는 (사)대동문화재단 주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명사와 떠나는 길 위의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까지 진행했던 명사와의 남도 여행을 좀 더 많은 관광객에게 전달하고자 책으로 엮었다.

'토요일은 좋아 담양맛기행'은 (사)남도음식문화콘텐츠진흥회 주관으로 담양·광주 지역 '미식남도'의 콘텐츠를 있는 음식집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미식투어를 진행해 음식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한 맛집을 엮어 남도 음식관광 이정표를 세우는 마음으로 '토요일은 좋아 담양맛기행'이라는 책자로 발간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여행 활성화 사업으로 8권역인 담양·나주, 목포, 광주시는 2021년까지 함께 '남도맛기행' 사업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책자발간과 함께 야간경관조명 콘텐츠사업을 비롯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해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담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 여수시, 비민탈출 70일 프로젝트 시범 운영

내년 본격 운영 구상

여수시가 고도비민민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 비민탈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10월부터 12월까지 70일간 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은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한 15명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참여자를 모집한 후 BMI(체질량지수) 검사 등 건강기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고도비민자 15명을 선발했다.

비민탈출 프로젝트는 자기주도 운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본인의 생활환경 주변 민간운동시설에서 주 5일 운동하고 70일간 1일 1만보 걷기를 실천한다.

운동시설은 업무협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

일 민간운동시설 4곳과 업무협약을 하고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1일 1만보 걷기 운동은 스마트폰 앱 '워크몬'을 활용한다. 워크몬을 내려받은 후 여수시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1일 걸음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비민탈출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 '화순국화향연' 26일 개막 축하공연

EXID·러블리즈·김연자·태진아 등 참여



화순군은 2018 화순 국화향연을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17일간 화순을 남산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26일 18시부터 화순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개막 축하 공연은 EXID, 러블리즈, 김연자, 태진아, 강진 등 인기 아이돌 및 트롯트, 발라드 등 대중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이번 축하공연은 2018 화순 국화

향연을 화려하게 수놓을 계획으로 군민 소통과 대화합, 제37회 군민의 날(10월13일)을 기념하고 2018 화순 국화향연 성공을 기원하여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한다.

2018 화순 국화향연은 '김삿갓이' 머문 국화동산이란 주제로 5.2ha의 남산공원 일원에 자연 지형을 이용해 오색 국화 및 여색, 핑크볼라, 코키아 등 50여만 주의 꽃들과 경관작물, 국화 조형물 450여점, 국화분재 440여점, 12개 체험행사, 18개 부대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국화작품 연구회·동호인들이 열정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가꾼 국화분재 작품 440여점을 3개 전시

관에 전시하고 화순읍내 시가지 도로주변에 국화분을 전시하여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금강증을 유발하여 국화동산으로 발길을 유도한다.

고인돌전통시장에서 상설무대공연을, 광덕문화광장에서는 프리지 공연과 국화와 함께하는 군민 참여마당이 열리고, 감삿밭 방랑체험, 캐리커처, 포토샵 만들기 등 12개 체험행사가 상설 운영된다.

고인돌전통시장, 국화동산(남산), 화순전 등 화순군 일원에서 18개 부대행사를 준비하여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준 준비를 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 군정목표로 "화순군민의 화순 시는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국화향연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며 군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영암군 군서면, 제20회 면민의 날 성료

화합과 도약의 시간가져

영암군 군서면은 최근 구립초등학교 체육관에서 300여 명의 내외귀빈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군서면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군서농협 난타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효부상, 면민의 상, 장학금 수여, 축하 등으로 치러졌다.

효부상은 90세 되신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온 권리마을 김명희씨, 면민의 상에는 2000년부터 왕인식품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면민 복지향상에 기여해 온 박정희 사장, 화합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중고등학생 3명이 장학

금을 수상했다. 군서면민의 날은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하여 매년 육내와 옥외로 격년제로 치러지고 있다.

진동평 군수는 축사를 통해 "군서면이 영암 문화관광을 이끌고 있다"며 "면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영암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구장진 면장은 기념사를 통해 "군서면의 자랑스런 문화와 전통을 100퍼센트 발휘하여 군서면의 화합의 도약을 이끌고 오늘 면민의 날이면 민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일치단결하여 군서면을 더욱 비상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